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형용사+대명사 구문의 비교

안 병 팔*

1.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대명사나 고유명사와의 어결합(словосочетани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셀리베르스토바(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와 마슬로프(Маслов 1987, 167)¹⁾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대명사 및 고유명사와의 어결합이 허용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형용사간(또는 대명사간) 차이를 규명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러시아어와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이루는 어결합의 예문을 살펴보자:

1) умный человек

1') 지혜로운 사람

2) ? умный Иван Иванович

2') 지혜로운 이반 이바니치

3) *умный он

3') 지혜로운 그(를 보면 ...)

위 1),1')의 예처럼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어결합은 러시아어와 한국어

* 서경대학교 노어학과 교수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Есть и свои особенности в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очетаемости, например, личные и некоторые другие местоимения-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обычно не сочетаются с определением-прилагательным.(Маслов 1987, 167)

에서 당연히 모두 허용되지만, 예문 2)의 러시아어 예문처럼 형용사와 고유명사의 어결합이나 예문 3)처럼 형용사와 대명사의 어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표현들의 번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어의 표현들은 1')처럼 형용사²⁾가 명사뿐만 아니라, 2'), 3')와 같이 고유명사³⁾나 대명사⁴⁾와의

2) 한국어에서의 형용사 특성에 관련하여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형용사는 “품사의 하나로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과 상태 또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서 “활용할 수 있어 동사와 같이 용언에 속한다. 단독으로 서술어·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점이 동사와 같은데, 이는 한국어의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 be 동사가 개제되는 영어 형용사의 술어용법과 다른 특색이다. 그래서 형용사를 동사로 분류하여 이것을 기술동사(記述動詞)라 하고, 본래의 동사를 동작동사(動作動詞)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형용사는 그 활용에 있어서 진행형인 ‘-는다’, 관형사형 어미 ‘-는’, 그리고 명령법·청유법(請誘法) 어미가 붙을 수 없는 점이 동사와 달라서, 형용사와 동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영어의 품사 구분에서 형용사라고 할 때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특징인데, 실제로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는 각 언어의 어형변화의 특징과 구문상의 특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서 this나 any 등은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만 비교의 어형변화를 하지 않고, -ly를 취하지 않으며, 구문상으로도 다른 종류의 특징을 나타내므로 형용사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 중의 특정한 하위(下位)구별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89711>)

3) 고유명사(proper noun)는 한국어나 러시아어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어와 관련된 다음의 사전적 설명을 참고하시오:

고유명사는 “특정한 사물 및 사람의 고유 기호나 명칭으로서 동류(同類)의 다른 사물과 구별된다. 명사의 한 부류로, 인명·지명·국명·책명·사건명 등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개인의 이름은 모두 고유명사이며, 또한 우리 동포를 묶어서 ‘한국인’이라고 불러 다른 국민과 구별할 때, ‘한국인’이란 명칭도 고유명사이다. 그러나 ‘태양’처럼 본래 같은 것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의 명칭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담배 이름의 ‘한라산’과, 열차의 명칭 ‘새마을’처럼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 동일한 고유명사로 불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동명이인인 경우처럼 동류에 속하는 복수의 자가 동일 고유명사를 가지는 사실이 있다든지, 또 필명과 본명처럼 동일인이 2개의 고유명사를 가지는 예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본래 어떤 한정된 경우에 있어서 개체(個體)를 다른 사물과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명명이기 때문이다. 고유명사의 의의는 그것으로 불리는 개체의 속성(屬性) 모두를 포함하여 기술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가령 ‘무궁화’(열차의 명칭)라는 고유명사가 수를 셀 수 있는 꽃을 의미할 경우에는 이미 보통명사화된 것이다.”(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4275>)

4)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방향을 직접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품사를 지칭한다. ‘대명

어결합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예문 3)에서 러시아어 형용사 умный는 대명사 он을 수식하는 어결합이 금지되는 반면, 3')처럼 한국어 형용사 '지혜로운'은 대명사 '그'를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형용사가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2')의 예문이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반면, 2)의 러시아어 예문은 러시아 모국어화자⁵⁾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한국어와 러시아어에 있어서 형용사와 고유명사 또는 대명사와의 어결합 가능성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4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가정을 생각하게 된다:

가정1: 형용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는 마슬로프와 셸리베르스토바의 주장은 보편성이 없는 주장이다. 즉, 특정언어(language-specific)에만 적용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정2: 마슬로프나 셸리베르스토바의 주장은 옳지만, 한국어 대명사는 러시아어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대명사는 영어나 러시아어의 대명사와 달리 명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형용사와 자연스럽게 어결합을 이룰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사' 라는 말이 '명사를 대신한다' 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명사를 통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대명사이다.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한다면, 이름을 모르거나 이름이 없는 대상은 대명사로도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다. 지시는 상황 지시가 기본이며, 문맥적 대상이나 관념적 대상에 대한 지시는 부수적인 것이다. 대명사는 크게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의 둘로 나뉜다. 이 외에 의미론적인 성격이나 통사적 기능에 따라 관계대명사, 부정(不定)대명사, 소유대명사, 재귀대명사, 의문대명사와 같이 나뉘기도 한다. 한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으며, 소유대명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인칭대명사는 크게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 등으로 나뉘고, 지시대명사는 사물대명사와 처소대명사로 나뉜다. 대명사가 문맥적 대상을 가리킬 때, 이를 특히 조응사(照應詞)라고 한다. 선행 문맥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전방조응사(anaphor)라 하고, 후행 문맥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후방조응사(cataphor)라고 한다. 촘스키의 결속 이론에서는 핵 동사나 명사의 의미역 영역 안에 대명사와 그 지시 표현이 함께 쓰일 수 없음을 포착하려는 것이나, 국어의 경우에는 그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44602>)

- 5) 이를 확인한 모국어화자는 서경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러시아의 대학생 김 Галина와 Женья 양이다.

가정3: 마슬로프나 쉘리베르스토바의 주장은 옳지만 한국어 형용사의 성질이 러시아어와 달라서 대명사와의 어결합을 허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가정4: 마슬로프나 쉘리베르스토바의 주장은 옳지만 한국어 형용사와 대명사는 모두 러시아어와 달라서 형용사와 대명사의 수식관계 어결합을 허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형용사와 대명사 결합을 금지하는 러시아어의 자료를 다음 장에서 쉘리베르스토바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게 된다.

2. 앞선 연구

서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형용사가 대명사와의 어결합이 불가능한 근본적 이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쉘리베르스토바(1988 35)는 어결합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화상대자 2인칭’을 ‘собеседница’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교체하여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1) Моя собеседница(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 ‘나의 대화상대자’
1’) *Моя ты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예문 1)은 좋지만 명사 собеседница를 대명사인 ты로 바꾼 경우인 1’)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대명사는 지시대상을 유일하게 정체확인(идентификация)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한정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구태여 한정어(определение)⁶⁾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문 2)

6) 한정어(определение)와 형용사는 구별이 되는 개념이다. 한정어는 문장의 성분이지만, 형용사는 한정어를 이루는 단어의 품사에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의 비교를 위하여 한정어를 이루는 품사 중에 예문 3),4)와 같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Селиверстова(1988 35-36)가 말하는 한정어 중에서 형용사의 예만을 가려 뽑고, 언급되는 쉘리베르스토바에서의 ‘한정어’라는 개념은 형용사를 지칭하는 것과 동일한 지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와 같이 유일하게 정체확인된 대명사의 다음에 후치 (постпозиция)시키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 2) Ты, милая, добрая, как ты можешь так говорить?(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
 ‘자상하고 착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러면서 한정어가 의미상 전치(препозиция)할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 3) Эй, ты в шляпе, подойди сюда!(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
 ‘어이, 모자 쓴 너 이리와’
 4) Уберите этого в кепке.(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
 ‘모자 쓴 이 사람을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가라’

예문 3),4)의 경우는 문장 구조상으로 후치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한정어가 전치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정어가 대명사의 정체확인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문 5),6)과 같이 한정어가 대명사보다 전치되어 있는 유일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때는 대명사가 그 지시물(референт)을 화행(акт речи)이 아닌, 대명사가 발화되기 이전의 나온 말속(в предречи)에서 찾을 수 있는 문맥이 있는 경우라는 것⁷⁾이다:

- 5) Как будто бы в меня вселилась другая, посторонняя мне женщина, а я, настоящая Я, только с ужасом прислушивалась и приглядывалась к ней(Рунова)
 (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
 ‘마치 내 안에 낯선 다른 여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 진짜 나는 그 여자에게 오로지 두려워서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고 있었다’
 6) ... ведь этаким Я, только один и есть.(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
 ‘독특한 나라는 존재는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고유명사와 대명

- 7) 이에 대해서 셀리베르스토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Есть только одно условие, при котором определения к я, ты, вы, стоят в препозиции, а именно, когда контекст строится так, что местоимение получает свой референт не в акте речи, а как бы в <предречи> или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до произнесения самого местоимения. Показателем этого часто служит повторн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

사를 비교하고 있다. 형용사가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예문(7),9)는 가능하지만 대명사를 수식하는 8),10)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7) Мой дорогой Иван Иванович (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6)

‘나의 사랑하는 이반 이바니치’

8) *Моя другая ты(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6)

9) Глубокоуважаемый Иван Иванович(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6)

10) *Уважаемый ты(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6)

고유명사가 복수적인 것으로 해석 가능한 다음 11)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일하게 정체가 확인되는 고유명사에 있어서도 한정어가 사용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11) ? Это был умный Иван Иванович.(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

예문 11)은 이반 이바니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복수로 존재하며 그 중에 똑똑한 이반 이바니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한정어가 고유명사와 결합하여 유일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위의 예문 3),4),5),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정어가 대명사의 정체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대명사의 유일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한정어가 대명사를 수식하는 어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유일정체성의 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문 8), 10)처럼 화자의 청자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에도 한정어와 대명사의 어결합은 금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명사는 보통 그 자체로서 유일정체성이 확인된 것으로서 더 이상의 한정어 필요하지 않으며 해서도 안 된다는 쉘리베르스토바의 주장이 한국어 예문인 서론의 예문 2'), 3') 등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된다.

3. 문제의 검토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명사와 두 가지 점에서 구별이 된다. 먼저 대명사는

명사와 한정성⁸⁾에서 구별이 된다. 가령, girl하게 되면 소녀라는 자질을 가진 모든 원소들이 속해 있는 집합을 지시하게 되지만 the girl하게 되면 소녀라는 집합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의 소녀만을 지시하게 된다. 여기서 girl은 이른바 유형(type)을 지시하지만, the girl은 특정한 개체(individual)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다(김종도 2002, 188-194).

러시아어에서 형용사가 수식어로서 명사를 한정하는 것은 지시대상(referent)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definite)하는 과정이다. 즉 умный человек이라는 명사구는 человек이라는 포괄적 자질을 가진 집합의 원소 중에서 умный라는 자질을 가진 집합을 추려내는 것이다. 이것은 человек의 개체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과 умный가 가지는 자질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이 지시하는 대상을 필요한 만큼 좁게 한정하여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대명사라는 것은 어떤 명사에 있어서 한정성이 이미 부여되어 있어서 개체로서 정해진 명사구(NP)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⁹⁾. 이미 개체로서 지시된 것을 다시 한정하기 위해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언어의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가령 영어의 경우에 boy하게 되면 소년이라는 자질을 가진 유형(type)을 지시하게 되지만 the boy하게 되면 특별하게 정해진 소년을 지시하게 된다. 이런 the boy를 대명사 he로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이 the boy를 한정하기 위해 smart를 붙여 smart + the boy, 즉 smart the boy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smart + he, 즉 smart he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정성을 표현하는 형태적인 표지인 정관사가 없는 러시아어에서는 the boy와 boy의 차이가 형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즉, мальчик(+definite)과 мальчик(-definite)이 표면적

8) 한정성이란 개념에 대해서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자에 의해 논란이 있었음을 밝힌다. “한정성이란 너무 모호한 개념으로서 차라리 유일정체 파악가능성(uniunely identifiable)의 개념으로 대체하여 피수식명사나 대명사가 이미 이런 자질을 갖는 경우 러시아어에서 수식어가 오기 힘들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더구나 대명사의 경우 매우 특이한 맥락에서 전치된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고유명사보다 이런 조합을 허용하기 힘들므로 이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위계가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위의 지적에 대해 연구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정성의 용어는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서 피하기로 한다.

9) 대명사의 명사구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정미애(1997, 174)를 참고하시오.

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мальчик과 형용사 수식어 умный와의 어결합 가능성 여부는 1), 2)에서 표면상 드러나지 않게 된다:

- 1) умный + мальчик(+definite) ----> *умный + он -->*умный он
 2) умный + мальчик(-definite) ----> умный + мальчик --> умный мальчик

앞서서 언급하였듯이 대명사의 형용사 수식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시 대상에 대한 한정성이 확보되어 개체가 유일한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점에서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어는 어떻게 해서 한정성이 확보된 대명사를 다시 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현상이 가능하기 위해서 즉, 한국어에서처럼 형용사와 대명사의 어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대명사는 한정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수식하는 형용사가 한정성을 부여하지 않는 형용사라야 한다.

그리고 형용사와 대명사의 어결합에서 고려해야 되는 대명사와 명사와의 차이는 형태통사적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의 결합성과 관련하여 명사구(NP: noun phrase) 차원과 명사(N: noun) 차원의 위계를 구별하여 생각해야 한다. he는 the boy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시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구차원의 문장의 성분이지만 명사는 그러한 명사구를 구성하는 품사차원의 단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명사구로서 형태통사적 차원의 문장 성분으로서 필요한 수식어에 의해 확정 판단된 상태에 있는 명사구를 단어차원의 형용사로 다시 한정하는 것은 결합차원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어긋나는 잉여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형태통사적 차원의 위반이라고 여겨지는 형용사 + 대명사의 어결합을 왜 허용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국어에서 형용사 + 대명사 어결합이 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그 대명사가 명사구(NP) 차원이 아닌지, 아니라면 형용사가 대명사와 같은 레벨의 구(phrase)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한국어의 대명사는 한정성이 결여되어 있는가?
2. 한국어의 형용사는 수식하고 있는 명사구에 대하여 한정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첫째 의문은 사실 자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도 대명사는 청자나 화자에게 이미 확정되어 분명히 정체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논증의 여지가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어에서의 형용사에 관한 부분이다. 둘째 의문, 즉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한정성이 아닌 다른 성질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구조차원의 레벨과 관련하여 고려할 때에는 대명사를 명사구(NP)차원이 아닌 명사(N)차원으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형용사가 대명사와 같은 레벨의 구(phrase)로 올려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레벨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대명사로서의 NP를 N으로 내리는 것은 당연히 불가하다. 이미 명사구로서 정해진 것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을 안 알려진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경우에 한국어 형용사를 구의 차원으로 올려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어 형용사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된다:

1. 대명사를 수식하는 한국어 형용사는 그 대명사에 대하여 한정성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
2. 대명사를 수식하는 한국어 형용사는 단어 차원이 아닌 구(phrase)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형용사의 한정성 기능과 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명사가 형용사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의 경우를 검토하여야 한다:

- 3) Ты, милая, добрая, как ты можешь так говорить?(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
- 3-1) Ты, [которая милая, добрая], как ты можешь так говорить?
- 3-2) *Милая, добрая ты, как ты можешь так говорить?
- 3-3) 자상하고 착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예문 3)에서 보듯이 러시아어에서도 형용사가 대명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것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에서

милая와 добрая가 ты에 한정성을 부여하는가의 문제이다. 형용사 милая와 добрая는 당연히 청자와 화자에게서 피차 이미 알려진 ты라는 대명사에 대해 유일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선행하는 대명사 ты의 특성에 대해 부연하고 서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милая와 добрая가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차원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3)은 3-1)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3-1)에서 милая와 добрая는 대명사 ты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예문 3)은 3-1)의 예문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를 고려하면 3)의 예문에서 형용사는 수식어라기 보다는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대명사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에서의 형용사 + 대명사 구문은 관계대명사 절이 대명사를 수식하는 러시아어 구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고 관형형 어미를 이용하여 수식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러시아어에서 3)에서처럼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대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하는 것이 왜 허락되는 것인가?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절로 고쳐서 3-1)처럼 다시 쓸 수 있다. 영어에서와는 달리 러시아어에서는 관계대명사절이 한정적 용법인지 서술적 용법인지 외형상으로 구분¹⁰⁾하지 않고 실현된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절 속에서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인 경우와 서술적인 용법의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술어로서 사용되어진다. 이때 3), 3-1)의 예문에서처럼 관계대명사절의 주어는 이른바 PRO(또는 pro)¹¹⁾가 되며 그의 술어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서술적 용법으로

10)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서술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앞에 코머를 찍어서 한정적인 용법과 구별한다.

The girl, who is beautiful, is my sister.(서술적 용법)

The girl who is beautiful is my sister.(한정적 용법)

11) PRO는 음성적 실체가 없는 대명사적인 공범주(pronominal empty category)로서 지배 받지 않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대명사류적 대용사를 말한다. 즉 It is unclear [what PRO to do t] 문장에서 to do의 주어에 해당하는 비어 있는 범주의 대명사류적 대용사를 지칭한다. 반면에 pro는 지배받는 자리에서 나타나며 음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화맥에 의해서 알려질 수 있어서 탈락되는 것으로 대명사류 공범주라고 한다. 가령 러시아에서 [pro читаю книгу]에서 я는 동사의 변화형에 의

서 사용되는 경우에 형용사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술적인 것이 된다.

- 4) *Красивая она идёт.
 4') Она красивая.
 5) 아름다운 그녀.
 5') 아름다운 그녀가 온다.

4)의 경우에 명사구 она는 형용사 한정어 красивая에 의해서 다시 잉여적으로 지시대상을 한정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이 붙게 되어 언어의 경제성에 위반되므로 비문이 된다. 반면에 4')에서 형용사 красивая는 주어인 명사구 она를 한정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형용사 красивая는 명사구의 지시대상을 한정하기 위하여 중복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이미 한정되어 정체가 확정된 것으로 전제되어진 명사구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롭게 서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4), 4')에 대하여 5), 5')와 같이 번역되어진 예문인 경우에 한국어는 형용사 + 대명사의 구문이 문법적인 구조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형용사나 대명사 구조가 달라야 한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관형사(unconjugation adjective)¹²⁾와 구별되어진다. 한국어의 관형사는 이, 그, 저, 딴, 온, 새, 현, 옛 등과 같은 것으로 그 수가 제한¹³⁾되어 있다. 관형사는 형태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뒤에 오는 명사나 명사

해 밝혀져 있어서 탈락되어도 무방하다. 이런 지배받는 자리에서 탈락되는 공범주를 지칭한다.(영어학사전 1990, 968; 언어학사전 1987, 715)

12) 체언(體言) 또는 체언형(形)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品詞). 매김씨라고도 하며 활용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 수식되는 체언이나 체언형이 가진 뜻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 체언에 지배된다. 통어적(通語的)인 종류를 나누면 ① 사물의 원근(遠近)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指示冠形詞):이(사람) · 그(곳) · 저(여자), ② 사물의 특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질관형사 또는 성상관형사(性狀冠形詞):새(살림) · 외(아들) · 사회적(동물), ③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관형사(數冠形詞):몇(가지) · 온갖(풀) 등이다. 관형사의 특색은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용언의 관형형은 관형사와 흡사한 기능을 하지만 그 활용 여부로 관형사와 구별되며, 체언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으나 곡용하는 점이 관형사와 구별된다.(두산세계대백과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8457>)

13) 한국어의 관형사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면서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에 형용사는 동사와 더불어 문장의 서술어¹⁴⁾로 기능하며 어미에 의해 문법적 기능이 표현된다. 어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간만으로는 단어 구실을 하지 못한다. 형용사는 어미가 활용한 다는 점에서 동사와 더불어 용언(用言)¹⁵⁾으로 분류되며 동사처럼 서술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
- a. 이, 그, 저
 b. 딸, 여느, 어느, 무슨, 웬, 각(各), 별(別)
 c. 모든, 온, 갖은, 온갖, 전(全)
 d. 새, 현, 옛, 순(純)
 (이익섭 외 1997,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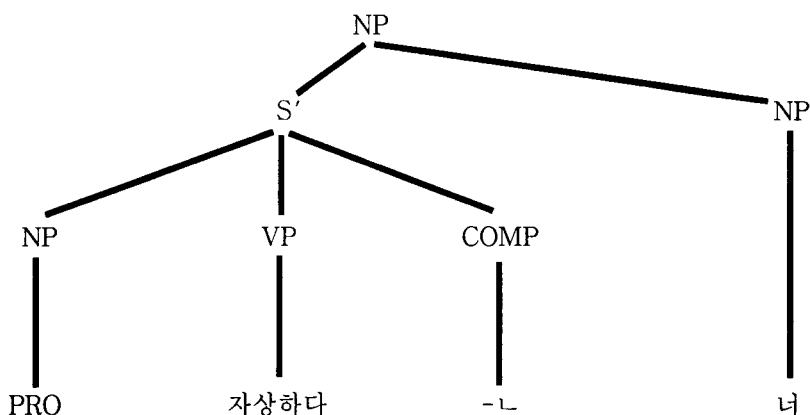
- 14) 서술어 敍述語 (predicate)는 문장 구성의 기본 골격이 되는 요소로서, 주어의 동작·상태·성질 따위를 서술하며 자신이 나타내는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른 언어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 들을 서술어의 논항(論項; argumen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죽이다'라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건 이 완전히 명시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죽이는 존재와 죽임을 당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언어표 현이 필요하므로 이들 언어표현은 서술어 '죽이다'의 논항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술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논항들을 하나하나 취함으로써 문장이 형성된다. 서술어는 '무엇이 어찌한다'의 '어찌한다'에 해당하는 동사 서술어, '무엇이 어떠하다'의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형용사 서술어, '무엇이 무엇이다'의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계사(繫辭) 서술어로 분류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논 항의 수, 즉 자릿수(valency)에 따라 한자리 서술어, 두자리 서술어, 세자리 서술어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89426>)
- 15) 용언은 독립된 뜻을 가지고 어미(語尾)를 활용하여 문장성분으로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말로서 풀이씨라고도 하며 체언(體言)에 대립된다. 어간(語幹)과 어미로 되어 있다. 어간에는 여러 가지 어미가 붙어서 여러 가지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어간은 하나[예:가-(去), 오-(來), 보-(見) 등] 또는 둘 이상의 어근(語根)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예:오가-(往來), 빛나-(榮), 지나가-(過) 등]도 있고, 접사(接辭)에 의하여 파생된 어간도 있다. 어미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또한 이들 어미와 어간 사이에 들어가 존대법·시제법 등의 범범주(法範疇)를 이루는 선행어미(先行語尾)로 나누어진다. 용언은 대개 동사·형용사·지정사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모두 사물의 동작·성질·상태·환언(換言)의 뜻을 나타내면서 활용하며 서술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지정사는 학자에 따라 용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언의 활용으로 다루어 서술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독립한 뜻을 가지고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다는 데 논거를 두고 있다. 동사와 형용사 및 지정사는 그 뜻으로도 대강 구별이 되지만, 그 분류 원칙은 그들 활용에 의지한다.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존재사·지정사는 모두 설정하지 않는다.(두산세계대백과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18445>)

- 5) [PRO 자상하고 착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 5') [마음씨가 자상하고 착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 5'') ?[얼굴이 자상하고 착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 5''') [행동거지가 자상하고 착했던]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5)는 그 앞에 다른 성분을 부가한 5'), 5'')에서처럼 절(sentence)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5'),5'')에 해당하는 것은 러시아어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

- 6) Ты, милая, добрая, как ты можешь так говорить?
- 6') Ты, [PRO милая, добрая], как ты можешь так говорить?
- 6'-1) Ты, [которая милая, добрая], как ты можешь так говорить?
- 6'') Ты, [чья душа милая, добрая], как ты можешь так говорить?
- 6''') Ты, [чьё поведение милое, доброе], как ты можешь так говорить?

이러한 5)의 명사구 부분인 '자상한 너'라는 NP 부분만을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절 S'에 의해 수식되는 NP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5-1) [PRO 자상한] 너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관형사처럼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사처럼 서술적인 것이다. 6')의 경우는 6'-1)처럼 주어가 공범주(empty category) PRO로 실현

되었을 뿐이지 하나의 관형어(adnominal phrase)¹⁶⁾절로서 красивая (= которая красивая)가 선행사인 ты를 수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대명사를 한정적으로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에 대하여 그의 성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순수하게 한정적 역할을 하는 관형사의 경우를 보면 잘 드러나게 된다:

- 7-1)* 새 너를 보면 힘이 솟는다.
- 7-1') [PRO 새로운] 너를 보면 힘이 솟는다.
- 7-2) 새 학생을 보면 힘이 솟는다.
- 7-3) 새 선생님을 보면 힘이 솟는다.
- 7-4) *새 당신을 보면 힘이 솟는다.

위의 7-1) ~ 7-4)예문에서 관형사의 한정적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루는 명사구는 적당하지만 7-1),7-4)에서처럼 명사구를 이루는 대명사에 대해 한정적인 관형사가 수식하는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그러나 형용사가 관형사절을 이루어 수식하는 경우에는 적합하다:

- 8-1) [pro 새로운]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 8-1') [교수법이 새로운]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 8-2) [pro 새로운] 학생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 8-2') [유니폼이 새로운] 학생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 8-3) [pro 새로운]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 8-3') [모자가 새로운]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 8-3'') *새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 8-3''') *모자가 새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16)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과는 달리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부속성분에 속한다. 관형어는 문장성분의 일종으로, 품사의 하나인 관형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관형사는 항상 관형어의 기능만 하는 단어 부류를 말하는데, '이 책'의 '이', '모든 사람'의 '모든'이 관형사의 예가 된다. 이때 관형사만이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철수의'와 같은 체언의 속격형, '예쁜'과 같은 용언의 관형사형도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관형어는 대개 수의적인 요소이나, 피수식 요소가 의존명사이면 관형어가 반드시 요구된다. 어떤 의존명사는 특정 유형의 관형어만을 특별히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따름'은 관형사형어미 '-르'로 끝나는 용언의 관형사형만을 요구한다. (두산세계대백과 <http://kr.encycl.yahoo.com/inat.html?id=18458>)

8-4) [pro 새로운] 너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

8-4') *새 너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

술어의 논항¹⁷⁾이 고려된 예문 8-3')가 적합한 것은 형용사로 이루어진 관형사절의 수식을 대명사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홍식 2000 75-95). 이러한 문장들은 러시아어로 옮길 경우 관계대명사절 구조를 가지게 된다:

8-3) 새로운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Вы, [который PRO новый], меня двигаете.

8-4) 새로운 너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

Ты, [который PRO новый], меня двигаешь.

이러한 형용사의 특징은 형용사와 고유명사의 결합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고유명사는 유일한 지시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러시아어에서 형용사로서 한정을 하게 되면 이미 유일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중복하여 다시 한정하는 것이 되므로 언어의 경제성에 비춰 볼 때 잉여적인 것이 되어 비문이 된다. 그러나 고유명사를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9) ? красивая Марина

9') [pro 아름다운] 마리나

위 9)의 경우는 Марина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 들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유일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¹⁸⁾될 수 있

17) 이에 대해서는 유현경(1998, 45-49), 김시곤(2000)을 참조하십시오.

18) красивая Марина와 같은 예문에 대해서 본 논문의 심사자에 의해 다른 논란이 있었음을 밝힌다. “красивая Марина와 같은 조합은 마치 마리나에 붙은 별칭 Epithet와 같이 사용될 가능성도 많은 만큼 반드시 혼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체확인 기능을 위해 사용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고대 러시아어에서는 이같은 경우가 많았고 형용사 단독으로도 대명사나 고유명사를 대신하여 지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가 별칭으로 단독적 또는 독립적으로 쓰인 경우가 아니라 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검토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을 뿐이다. 별칭으로서 사용된 경우와 단독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추후 보완해야될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는 것이다. красивая Марина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красивая она는 좋지 않다. 이것은 она라는 것은 지시대상이 Марина와 같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형용사 + 고유명사 구문은 10),10-1)처럼 가능하지만, 관형사 + 고유명사는 10') 10'')처럼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서도 한국어의 형용사는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지만, 관형사는 한정적 역할을 함이 드러난다:

- 10) [pro 새로운] 현정이
- 10-1) [마음씨가 새로운] 현정이
- 10') ? 새 현정이
- 10'') ? 새 정숙이
- 11) 새 사람

형용사는 시제가 반영되어 서술어라는 것을 확연하게 나타낸다:

- 12) [pro 아름다운] 그녀가 노래를 하고 있다.
- 12') [pro 아름답던] 그녀가 노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형용사가 러시아어에서 형용사 + 명사 구문에서는 적절하지만, 형용사 + 대명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서 명사와 대명사가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명사는 유형(type)을 지시하는 것이지만 대명사는 그러한 유형 가운데서 특정한 하나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시대상이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청자와 화자가 유일하게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정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 결론

형용사가 이루는 어결함을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 1) 형용사 + 명사
- 1') красивая женщина

1") [pro 아름다운] 여자

2) 형용사 + 대명사

2') *красивая она

2") [pro 아름다운] 그녀

3) 대명사 + 형용사

3') Она, [которая PRO красивая], ...

3") [pro 아름다운] 그녀

1-3)에 해당하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구문에서 1), 3)은 가능하지만, 2)의 구문은 좀 특별하다.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지만 러시아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명사가 이들 언어간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형용사의 기능과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동사처럼 활용을 하며 서술어로 사용된다. 러시아어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한정적인 기능을 하는 한정어로서, 즉 한국어의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형용사가 명사구에서 수식의 위치에 오게 되면 명사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명사와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대명사와는 결합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한국어에서 형용사와 관형사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형용사는 한정해 주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반면 관형사는 철저하게 활용되지 않고 한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관형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대명사가 화자나 청자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확정된 한정적 지시대상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유일하게 확정된 대상을 다시 한번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형용사는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절 안에서 주어의 특성이 어떠함을 서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¹⁹⁾ 따라서 한국어에서 형용사 + 대명사 구조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에 있어서 이러한 구문의 차이는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기능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19) 결론부분에서 형용사와 관형사를 좀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한국어와 노어의 형용사 기능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본 논문 심사자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이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거론되지 않은 형동사(причастие)의 문제와 더불어서 차후의 연구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종도(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 박이정.
- 시정곤, 고광주, 유혜원, 김미령(2000) 『논항구조란 무엇인가』, 서울: 월인.
- 유현경(1998) 『국어의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이익섭, 이상억, 채완(1997) 『한국의 언어』, 서울: 신구문화사.
- 이정민, 배영남(1987) 『언어학사전』, 서울: 박영사
- 이홍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 월인.
- 조성식 외(1990) 『영어학사전』, 서울: 신아사.
- 정미애(1997) 『영어조용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 Вольф Е.М. (1974) 『Грамматика и семантика местоимений』, Москва: Наука.
- (1978) 『Грамматика и семантика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Москва: Наука.
- Маслов Ю.С.(1987) 『Введение в языкознание』, Москва: Высшая школа.
- Селиверстова О.Н.(1988) 『Местоимения в языке и речи』, Москва: Наука.
- 두산세계대백과,EnCybe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4275> (2002년 4월 3일)
- 두산세계대백과,EnCybe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89711>(2002년 4월 3일)
- 두산세계대백과,EnCybe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44602>(2002년 4월 3일)
- 두산세계대백과,EnCybe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8457>(2002년 4월 3일)
- 두산세계대백과,EnCybe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18445>(2002년 4월 3일)

Резюме

Сравнение конструкци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 местоим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русским.

Ан, Бён-Пхал

По наблюдению Маслова(1987 167) и Селиверстова(1988 35-36)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личные местоимения не сочетаются с определениями-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 1) Моя собеседница(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5)
'나의 대화상대자'
- 1') *Моя ты
- 2) Мой дорогой Иван Иванович (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6)
'나의 사랑하는 이반 이바니치'
- 3) *Моя другая ты(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6)
- 4) Глубокоуважаемый Иван Иванович(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6)
- 5) *Уважаемый ты(Селиверстова 1988, 36)

Эту особенность можно наблюдать не только в русском, но и в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естоимения и собственные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хорошо сочетаются с определениями-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в предложении (6'), 7'), 8'):

- 6) умный человек
- 6') 지혜로운 사람
умный человек
- 7) ? умный Иван Иванович
- 7') 지혜로운 이반 이바니치
умный Иван Иванович

8) *умный о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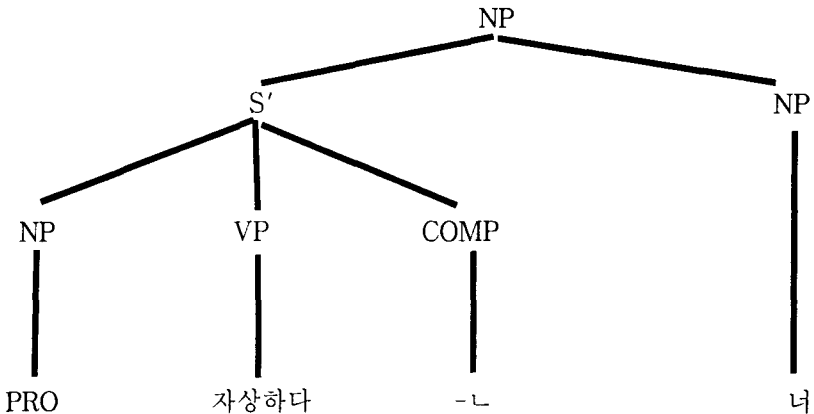
8') 지혜로운 그(를 보면 ...)

умный он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объясняется, почему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ельзя сочетать местоимения и собственные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с определениями-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а в корейском -- это возможно.

Самая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в этом различии -- это разница функци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спрягают как глагол и функционируют не определением, а сказуемым в адноминимальной фразе, чтобы описывать существительную группу(NP). В этом случае определения-прилагательные формируют адноминимальную фразу. То есть сочетание определений-прилагательных с местоимениям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меет синтаксически глубокую структуру, не как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а как соединения адноминимальной фразы с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й группой.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меет функцию определения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N) через определение-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н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имеет функцию не определения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N), а описания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й группы(NP). Это значит,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меет характер глагола в эквивалентной сфере сочетания определений-прилагательных с местоимениями в рисунке 9).



МИЛЫЙ ТЫ

9) [pro 자상한] 너

МИЛЫЙ ТЫ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2. 3. 14
	논문심사일:	2002. 3. 18~2002. 4. 6
	심사완료일:	2002. 4. 20

필자약력(안병팔)

	소 속:	서경대 교수
	출 신:	한국외대
	전 공:	러시아어학 의미론
	대표논문:	“러시아어 1,2 인칭에서 재귀소유대명사와 인칭소유대명사의 의미 차이에 관한 연구” (러시아어연구, 2001)
	대표저작:	『러시아어학의 이해』(이명자·안병팔 공저, 한신문화사, 1998)